

무형문화재 택견 전승을 위한 기록화의 필요성과 의미 고찰*

정성미**(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국문초록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면서 동시에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의 위상은 매우 높다. 하지만 택견 역시 다른 무형문화재 종목과 마찬가지로 전승활성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주체의 다양한 전승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전승 상황에 맞는 보호방안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기록화’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된 ‘전형(典型)’이라는 개념은 현재 전승자, 행정가, 학자 등 여러 관계자에게는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종목별로 적합한 전형기준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택견의 전승현황을 조망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택견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전승해야 하는 원리라고 인식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택견의 기록화 현황을 살펴보고, 전승주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어 : 택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전형, 디지털 아카이브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4104). 더불어 2019년 유네스코 등재기념 택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무형문화재 택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화와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수정·보완한 것임.

* pyramid58@hanmail.net

I. 서론

택견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인정 받았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목이다. 개인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2013년 7월 17일 단체종목으로 전환되면서 사단법인 택견보존회를 설립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무형문화재 관련 전승자들은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종목이 비지정인 경우 종목을 지정받거나 보유자 혹은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만약 시도지정인 경우라면 국가지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지정 종목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택견의 위상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택견 역시 다른 무형문화재 종목과 마찬가지로 전승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승활성화는 곧 전수교육을 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형문화재 전승주체(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포함)의 다양한 전승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전승 상황에 맞는 보호방안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택견의 어떠한 원리와 중요성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무도, 무예, 무술처럼 다른 용어로 칭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택견을 전승하고 있는 전승주체들의 문제의식과 경험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기록화’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택견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택견 발전의 대표적인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택견 단체 간의 과도한 경쟁과 불화’이다(양재식 외, 2018).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택견 단체들은 한국택견협회,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회이다. 한국택견협회는 1977년 신한승 선생(초대 인간문화재)의 택견동인회에서 시작되었으며, 결련택견협회는 1983년 송덕기 선생(초대 예능보유자)의 택견보존

회로부터 시작된 단체이고, 마지막으로 대한택견회는 1984년 이용복 회장의 한국전통택견연구회로부터 비롯되었다(양재식 외, 2018). 특히 택견의 기예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 단체 간의 갈등은 서로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정재성, 2003).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택견협회와 대한택견회가 상생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강신욱, 2017).

이 글은 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 택견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택견보존회가 추구해야 하는 활동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택견 단체 간의 지나친 견제의 문제 혹은 택견 전승 내용에 대한 원형과 정통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와 같이 택견 보존회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 제3조(기본원칙)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典型)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형을 핵심가치로 내세운 무형문화재 종목으로서의 택견을 전승하는 보존회는 ‘기록화’를 통해서 해당 종목의 역사성과 변화양상을 밝히고, 택견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분석해야 하며, 다양한 층위의 전승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형문화재 택견의 ‘기록화’와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의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궁극적으로 택견의 무형문화유산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무형문화재 택견이 갖는 의미

택견 조사보고서는 1982년 당시 문화재위원이었던 임동권(任東權)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주요한 택견의 구성과 내용은 신한승 선생이 정리한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 전승자들은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 지·인정 당시 정리된 것을 원형(原形)으로 삼고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원형’과 관련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5년 3월 27일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되면서 ‘전형’이라는 새로운 해결안이 제시되었지만, 전승자, 행정가, 학자 등 여러 관계자에게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무형문화재법은 아래와 같이 전형유지 원칙을 천명하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중 해당 내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2조(정의)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1항 :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

무형문화재법 제2조 2항에서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데, 사용된 여러 용어와 개념 자체가 ‘다의적’, ‘추상적’, ‘주관적’인 한계가 있다. 이처럼 법적 개념, 학문적 개념, 행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 논란이 많고, 현장에서 전승하고 있는 전승주체들이 겪는 혼란도 많다. 원형과 달리 전형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창조성’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약 50여 년 간 지켜야 했던 ‘본질적 가치’인 ‘원형’과 충돌하면서 문화재 보전 정책이 추구해야하는 방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종목별로 적합한 전형기준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택견의 전형은 무엇인가? 택견의 전형 기준을 세우기 위

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가? 시행령 제2조의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은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단체종목으로서 택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더불어 원형의 기준을 지금까지는 지정 당시의 모습, 구성, 형식, 기술 등으로 정해둔 것과는 달리, 전형의 기준인 본질성과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미래지향적인 과제이다.

송준은 전형이란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이며, 특정 시기의 한 형태만을 고집하는 원형(原形)의 개념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인 내발적 역동성을 모두 포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준, 2008). 이것은 보유자가 선대로부터 전승한 기예에 자신이 새롭게 발전시킨 또는 변화시킨 기예를 추가하여 후대에 전승하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송준, 2019).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무형문화재 종목이 처한 다양한 환경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해당 전형이 긍정적인 의미의 ‘내발적 역동성’ 인지,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한 ‘의도한 변화’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개념을 차용한 무형문화재법에서도 모호한 법조항에 따른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의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고 변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송준, 2019)” 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송준은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필자는 해당 종목을 전승하는 주체 예컨대 보존회를 중심으로 한 전승주체의 체계적인 기록화 작업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택견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를 통해 석·박사 학위논문의 제목과 논문초록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주요 내용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다음 다섯 가지의 대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택견 기술과 경기 ② 택견 역사 및 변천 ③ 택견 활용 ④ 택견 교육 ⑤ 택견의 사회문화적 특징이다. 물론 분류체계별로 상호 중첩될 수 있거나, 시기에 따라 다른 연구주제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야 할 논문이 있을 수 있다. 논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택견 기술과 경기 항목에서는 경기규칙, 경기내용, 택견 동작에 대한 운동학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택견 역사 및 변천에서는 고구려, 근대이전, 구한말, 현대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인 특징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난 주요사상을 살피고 있다. 택견 활용으로는 공연예술, 생활체육, 연기훈련 활용, 축제, 무예콘텐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택견 교육은 주로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 교육효과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택견의 사회문화적 특징 분야에서는 주로 여가와 관련된 내용이 많고, 풍류(風流)적 속성을 밝히고,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국내 택견 논문에서 나타난 연구주제와 내용

택견 기술과 경기
· 택견에 내재된 신체문화에 관한 연구 · 택견의 놀이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택견 경기에 심관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 택견명인전 경기규칙의 발전방안 · 택견 경기규칙 변천에 관한 고찰 · 택견체조경연대회 참여만족도, 운동지속의지, 재참여의도 간의 관계 · 전통무술택견의 경기기술 분석에 관한 연구 · 전통무예로서 택견의 특성 · 택견의 실재와 원리 연구 · 송덕기의 택견 기술과 구한말 경기규칙에 대한 고찰 · 택견의 기본거리 운동시 심박수, 운동 강도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비교 연구 · 택견기술을 활용한 한국무용프로그램이 성인의 삶의 질, 기초체력에 미치는 효과 · 택견무예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특히 대한택견협회 조직을 중심으로 · 택견 경기대회의 환경요인 지각이 차기대회 재 참가 의사에 미치는 영향 · 전통무예의 정의와 특성에 나타난 택견의 전통성 고찰 · 태권도와 택견 주요 차기동작의 운동학적 변인 비교 · 한국의 미적(美的) 관점으로 바라본 전통무예 택견의 미(美)에 관한 연구 · 태권도와 택견의 상관성 · 택견의 숙련도에 따른 20대 남성의 평형성과 체력의 차이 · 택견 경기규칙 변화에 따른 경기내용의 차이 분석 · 택견 고수들의 경기분석 · 택견 품세에 나타난 인체조각의 역동적 표현에 관한 연구 · 택견 수련동작들의 운동강도와 에너지소비량 비교분석 · 태권도 발날 등 옆차기와 택견 발따귀 동작에 대한 운동역학적 비교 분석 · 택견 차기동작의 운동학적 분석 · 택견 품밟기의 속도에 따른 운동 강도 · 택견 결치기 동작 시 숙련집단과 비숙련집단 간 하지분절의 에너지 전이 비교분석 · 택견 선수들의 경기 전 경쟁 상태 불안과 해소방법과의 관계 · 한국민속춤과 택견의 비교분석을 통한 택견의 무용화작업 : 탈춤을 중심으로 · 택견 두름치기와 태권도 앞돌려 차기의 생체역학적 비교

• 태권의 몸짓이 지닌 민중적 요소에 관한 고찰 • 수박과 각저의 재해석을 통한 이론 정립 • TV 중계에 따른 태권 경기 기술 변화에 대한 연구 • 태권 품밧기의 원형에 관한 연구
태권 역사 및 변천
• 한국태권운동의 발전 및 문화특징에 관한 연구 • 태권문화원기: 위대태권 발생의 의미 • 태권 단체 간 경기 통합을 위한 구한말 태권 경기 규칙 원형 연구 • 태권의 스포츠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태권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 원전(原典)에 기반 한 북한 태권인식 변화 고찰 • 태권의 전승 상황과 발전적 계승방안 연구 • 태권의 현대사적 탐색 • 전통무예 태권의 현대체육적 의미 • 한·중·일 무예의 유·원·화 사상 •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생활과 신앙 • 한국무예 변천사 연구 • 한국 근대이전 맨손무예의 발달과정 연구
태권 활용
• 공연예술로서 태권의 가능성 탐색 • 태권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기훈련을 위한 태권의 활용 방안 연구 • 태권을 활용한 배우 신체훈련의 가능성 연구 • 현대 스포츠로서 태권의 발달과정과 의미 • 스포츠방송의 전통문화콘텐츠 수용양상과 방향에 관한 연구 : 전통무예 태권과 전통스포츠 씨름을 중심으로 • 태권을 통한 무예 콘텐츠 개발사례 연구 • 무도 수련자의 positioning 분석에 따른 마케팅 모델 구축 • 현대 지역축제 연구 :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중심으로
태권 교육
• 태권전수관의 운영 실태 분석 • 태권수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 태권 프로그램 수련이 정신질환자의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향분석 • 태권 수련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성 발달 관계 • 태권수련 아동의 인지심리적 요인 프로파일 분석 • 청소년의 태권 수련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 태권수련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태권 수련생 학부모들의 전수관 선정시 고려사항분석 • 송터기의 생애와 태권 형태 및 전수내용 • 초등학교 태권 수련생의 정서반응에 대한 연구 • 민속경기와 전통무예로써 태권 수련체계의 발전 방안 • 16주간 태권 기초 과정 수련이 체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태권지도자의 지도유형이 수련생의 수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태권 지도유형이 수련생 기본동작 학습에 미치는 영향 • 태권 지도자의 지도체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 태권 지도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수련만족 및 수련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 태권 지도자의 교육신념과 지도실제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 태권 지도자들의 스포츠관련 직업가치관 분석 • 무도(武道)지도자의 정의의식에 관한 연구 : 태권도· 합기도· 태권을 중심으로

• 12주간 태권 품밟기 운동이 초등학생의 외반슬 교정에 미치는 영향 • 12주간 태권 운동 프로그램이 신체구성 및 체력,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의 태권클럽 참여가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 태권을 활용한 물리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과학 창의성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태권 전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한국 전통무예의 수련목적 고찰 • 음악을 이용한 태권 연습이 수련생의 본때보기 수행과 운동정서에 미치는 영향 • 태권 운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거주 여성 노인의 균형, 하지 근력 및 보행 변수에 미치는 영향
태권의 사회문화적 특징
• 태권의 현대화 과정에 나타난 갈등구조 연구 • 태권수련이 여가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태권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진지한 여가 인과모형 분석 • 성인의 태권 참여동기와 여가만족도와의 관계 • 태권전수관의 서비스품질 요소가 구매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태권의 문화적 실체와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전통무예의 풍류적 해석 • 전통무예 태권에 내재된 풍류적 특성 연구

이러한 기존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적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해 태권의 원형 또는 전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성과나 전승주체의 다양한 정체성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진행한 성과물은 미비하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태권을 전승하는 단체인 보존회에서는 향후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혹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로 양분된 주무관청의 유형과 업무 성격을 비교해보아도 태권보존회와 한국태권협회가 무형문화재로서의 태권에 중점을 둔 법인격에 해당하며, 대한태권회와 결련태권협회가 전통스포츠로서의 태권에 중점을 둔 법인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양재식, 김정동, 강석범, 2018). 어느 국가기관에 속하여 활동하는지는 특정한 맥락에 따라 매우 독특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 개인과 단체는 여러 정체성 중 어느 것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지 선택·결정해야 하며, 활동을 하면서 특정 상황에 직면할 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한다(아마르티아 센, 2009). 개인과 단체는 특정한 맥락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서로 다른 선택지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대적인 중요성을 어떻게 부여할지 명시적이든 암묵

적이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아마르티아 센, 2009).

택전과 같은 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택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향유하는 전승주체가 해당 종목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인식·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승체계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무형문화재법의 ‘전형’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서 보면, 문화재 보호 정책과 제도를 둘러싼 환경과 개인·단체의 전승의지가 상호 충돌하고, 결합되는 지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Ⅲ.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록화

유형의 작품을 남기는 다른 무형문화재 종목과는 달리 맨손으로 하는 ‘무예·무술·무도’인 택전에 대한 기록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택전인 구술사(구술생애사) 기록화는 택전의 전승주체인 ‘택전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택전을 전승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다양한 조건과 결과를 드러난 차원뿐만 아니라 숨겨진 차원까지 살펴, 현상 이면에 감추어진 생각과 실천을 알아보는 작업이다. 특히 근현대 택전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주제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자료를 남길 수 있다. 요즈음 근현대 시기는 유형 중심인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제도와 유·무형을 통합한 자치단체의 미래유산 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에서는 택전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기술’을 보존하고는 있으나, 택전 전승주체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승현황에 대해서는 ‘기록’해야 할 의무가 없어, 관련 분야의 성과물이 거의 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위해 1995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연구가 모두 보유자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록화 사업이란 보유자(단체)의 기·예능을 영상과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도서 발간을 추진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택견의 경우, 2007년 정경화 보유자의 실연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종목의 주된 특징을 밝히는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체제 속에서 무형문화재의 ‘원형’은 당대 활약했던 학자들이 구축하고자 했던 민족문화의 ‘원형 archetype’ 개념과 혼용됨으로써 역사성을 마치 초월한 객관적 실체처럼 간주하였다(정수진, 2006). 그러나 앞서 살펴본듯원형은 이제 전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기록화 사업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담론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게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무형문화유산 분야는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무형문화재 활성화 촉진, 전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무형유산 지식기반 축적이 대표적이다.

무형유산 지식기반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무형유산 기록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전승자의 생애와 전승과정을 담은 구술채록 및 자서전 발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미래 기록유산의 가치를 담고 있다. 예전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과 달리 크게 강화된 부분이 전승자의 종목 전승현황에 못지않게 개인사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한다는 데 있다. 추후에 어떠한 콘텐츠로 활용될지 모르는 ‘원천소스’로서의 기록화가 갖는 가치를 염두에 둔 결과이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기록화 사업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데, 2017년 통영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승전무에서 북춤과 갈춤으로 I』이 그 예에 해당한다.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택견의 기록화 사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기 책의 의의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무형문화재 기록화 연구용역의 의의

이 책에서는 고문헌, 연구논문, 단행본, 옛 그림과 사진, 신문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관련 기록물들이 춤사위를 주요 동작 중심으로 설명한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단에 따라 춤의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것은 춤사위의 부분들이 전체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대형을 비롯한 전반적인 무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록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로 이루어져 있는 전승 주체(무용수/악사)들의 생애사와 종목 전승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정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 책 본문 중에서 발췌 -

한국에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문화재로 보호해왔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원형성, 수월성, 고급성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유네스코 협약과 무형문화재법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과 창조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따라서 택견보존회 구성원들이 대대로 전승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사와 변화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자료들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자료로 제작되므로, 보존회에서 활동하는 이수자, 전수생, 또는 일반인들이 촬영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동시에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해야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 이전에 생산된 문서, 사진, 녹음테이프, 영상테이프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스캐닝하거나 이미지로 변환하여 디지털화해야 한다.

위 두 가지 방식의 자료수집과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자료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한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메타데이터 정보가 명확해야 한다. 메타데이터(metadata)란 데이터(data)를 위한 데이터다. 물론 이외에도 아카이브 수집정책에 있어서도 일반원칙, 목적, 수집대상, 수집범위, 수집방법, 수집절차, 수집기록물의 형태, 기록물 관리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 관련 규정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배양희, 2017).

이때 여러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개소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195개 정회원국과 10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된 총 20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예철학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심신 수련의 기예가 포함된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과 리더십 향상, 공동체 참여에 이바지하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4대 기능 및 목적 중 연구 및 지식공유 분야 중 하나로, 세계전통무예에 관한 기록과 자료 수집 및 보급을 위한 무예자료처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주목해야 한다. 즉 사)택견보존회, 한국택견협회,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사)세계무술연맹, 국립무형유산원, 충주박물관, 기타 관련 단체 등의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록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지정 전과 문화재 지정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 지정 이후는 무도를 기반으로 한 몸짓으로 표현되는 택견의 특성상 구술 자료를 많이 남겨두어야 한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개별인터뷰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여 인식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에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의 전승활성화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 설문지 조사를 보충할 수 있는 내용, 보다 심화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택견 구술 분석 자료는 택견인들의 성장과정, 지역적, 교육적, 직업적 배경, 그들의 선택과 행위의 동기를 알 수 있는 구술채록문 원본(원천소스)을 통해 민속학적·인류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인 분석과 해석 자료를 포함하게 된다(최혜리, 2014). 이렇게 조사·수집된 구술채록문은 전승주체에 따라 택견의 ‘원형적’ 속성을 더욱 강조하기도 하고, ‘전형’을 위한 택견의 ‘본질’이나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한 내용도 산출될 것이다. 즉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시대변화와 세대교체에 따른 유의미한 시사점을 내포할 것이다.

Ⅳ. 택견 기록화 방안, 디지털 아카이브즈의 중요성

택견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위한 원본 그대로인 일차적인 기록물들은 종류와 형식, 내용과 형태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각종 공식·비공식 서류, 메모, 보고서, 지도, 일기, 금전출납부, 영수증, 도면, 포스터, 리플릿 등과 같은 문자기록물에서부터 소리와 영상을 담은 기록물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아카이브즈에 보관되는 자료들은 출판물 또는 저작물이라는 공식적인 인정·검증 과정을 밟지 않은 원본 자료라고 부르는 ‘원천자료(raw data)’이다(박순철 외, 2018).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담당하는 아키비스트는 숨겨져 있는 문화를 찾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승주체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

Ⅲ장에서 강조한 무형문화재 전승주체의 구술자료는 택견인이 택견을 전승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억을 통해 발화한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술자료는 구전, 구술증언, 구술생애사를 포함한다. 증언이란 개인들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이야기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택견 전승주체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택견 전수교육, 전승체계, 공연 경험 등 전반적인 택견의 전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의 증언을 통해 택견의 근현대사가 기록되는 것이다.

전승주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생산된 음성언어를 녹취문과 같은 형태로 문자화하면 재현의 한계가 따른다. 1990년대부터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의 녹취문을 사용한 단행본으로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즈에서는 이러한 재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음성 또는 영상 기반의 데이터를 생산·저장·활용할 수 있다.

원천소스는 전시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사용하는 원재료이지만 반드시 어떤 원형이거나 과거의 역사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정보제공자(인포먼트)에 의해 새롭게 기억되고,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체계가 반영된 것이다(정성미 외, 2019). 즉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조사자와 정보제

공자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이루어진 교류활동의 결과물인 자료에 내재된 주요 가치를 찾아내고,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제 택전을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 자료나 아카이브즈 현황을 살펴보겠다. 옛 그림과 사진으로는 1) 고구려 무용총 <수박희, 手搏戲>(안악3호분 전실 동벽 벽화)이 있다. 2)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대쾌도, 大快圖>는 현종 12년 1846년 해산 유숙이 그린 풍속화이다. 3)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콘텐츠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택견 겨루기>도 확인할 수 있는데, 1890년대 선교사가 찍은 사진이다.

전국박물관소장품 검색 시스템인 e뮤지엄에서 검색해 보면, 수원광교박물관(경기도)에 “전국결련택견대회 안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검색 시스템(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에서는 단행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래 8권에 해당한다.

표 4. 택견 관련 단행본 서지정보

1. 이용복, 택견, 대원사, 2001.
2. 조성균·이재필·최호식, 택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3. 여덕, (여덕의) 택견이야기, 학민사, 2007.
4. 정재성, 전통무예와 택견, 한국학술정보, 2008.
5. 김영만, 택견겨루기 總書, 상아기획, 2010.
6. 김영만, 택견 기술의 과학적 원리, 한국학술정보, 2012.
7. 장경태, 수련방법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1.
8. 정경화, 택견원론 : 重要無形文化財 第七六號, 보경문화사, 2002.

이외에도 사)세계무술연맹(WoMAU) 홈페이지에 택견에 대한 소개가 비교적 간략하게 되어 있으며, ICHPEDIA에도 세 건의 택견과 택견 공개행사를 모니터링하여 작성한 글이 업로드 되어 있다. 전통무예분야의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예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무예사료총서』가 있다.

201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한에서는 『무예도보통지 Comprehensive Illustrated Manual of Martial arts』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다.¹⁾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무예제보』를 등

1) 이로써 북한은 첫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참고로 한국은 1980년 인권기

재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북한에서 유네스코에 제출한 무예도보통지를 소개할 때 강조하는 것은 택견이 아닌 태권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Assessment against the selection criteria)’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태권도는 전통무술인 수박과 택견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표 5. 유네스코에 제출한 북한의 무예도보통지 보고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공손한 자기 방위의 무술인 태권도는 한국인 스스로가 만들어 내고 발전시킨 전통 무술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 전통 무술은 30세기 초반에 탄고(Tangun)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고대 국가 코요존(Kojoson) 시대에 창안되었다. 고구려 왕조 (277B.C ~ A.D.668)는 옛날부터 계승된 승마와 양궁과 같은 전통 무술을 장려한 중기 최강국이었다. 한국 무술은 오랜 역사와 우월성으로 이웃 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1790년 4월에 인쇄된 『무예도보통지』는 오늘날의 국제 무술인 태권도의 근원이 된 한국 전통 무술을 각각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포괄적인 무술 책이다. -중략- 이 책은 태권도의 뿌리인 한국 전통 무술과 세계 무술의 요람으로서의 우위를 자랑하는 동아시아 무술을 연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종략-

세계 탁월한 무술 중 하나인 태권도는 고구려의 전통 무술인 수박과 택견에서 탄생했다.

(Taekwondo, one of the world excellent martial arts, was originated from Subak and Taekgyon, the traditional martial arts created during Koguryo dynasty.)

-이하생략-

이와 같이 택견의 기록물로서도 매우 중요한 <무예도보통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만기요람>, <오주연문장전산고>, <청장관전서>, <정유각집>, <홍재전서>, <금릉집>, <연경재전집>, <국조보감>, <심리록>, <연려실기술>, <연암집>, <매산집>, <치평요람> 등으로 알려져 있다(제갈덕주, 2018). 이외에 택견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료는 <고려도경>,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무예고>, <동국여지승람>, <해동운

록유산 5·18광주 민주화운동기록물/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난중일기/ 동의보감/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해례본)/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왕조 의례/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한국의 유교책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기), <조선상고사>,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두섭, 2016).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어렵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택견 전승주체와 일반인도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필요하다(제갈덕주, 2018). 즉 흩어져 있는 택견 자료들을 발굴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즈로 수집·보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세계 무예의 보편성과 동시에 문화다양성이라는 인식론을 토대로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 택견의 정체성을 찾고, 보다 더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전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택견 디지털 아카이브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기억을 모으는 중추 역할을 해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것이다(김덕목, 2012).

정리하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이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을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한 자료와 기존의 관련 기록물들이 집대성되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여러 고문헌, 옛 그림과 사진, 근현대 신문기사 등도 디지털 아카이브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 자료는 구술자료 뿐만 아니라 영상기록화를 통한 결과물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원형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 담론으로 작용할 때, 국가가 수행한 기록화 사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영상기록화 사업이었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1962년 문교부령 13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조에 ‘녹음, 촬영, 악보, 대본 및 보유자 사진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중요무형문화재 사업에 있어 기록화 사업을 초창기부터 실행하였다(이상현, 2010). 보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무형의 기여능이 그대로 남아 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유지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즈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기관 아카이브와 달리 민간 아카이브는 다양한 전승주체의 구술, 일기, 편지, 포스터, 팜플렛, 사진, 소리, 영상, 기념품 등의

기록을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다. 즉 공공영역의 아카이브가 담아내기 어렵거나 소외시키기 쉬운 여러 전승현황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된다.

무형문화재로서 택견은 ‘스포츠’로서의 택견과 가장 차이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전승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철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택견 역시 해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공개행사의 실연장면은 정기적으로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공개행사 모니터링 영상 기록물만으로는 전승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양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종목의 특성상 연습장면과 전수교육 장면 등에 대한 영상제작도 필요하다. 물론 기록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며, 원활한 검색시스템과 효율적인 수집·보관을 위한 필수조건인 메타데이터도 갖추어야 한다. 어떤 데이터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 구조화된 정보를 분석, 분류하고 부가적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데이터 뒤에 함께 따라가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아카이브 구조와 원리를 채택하는 이유는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록물에 담겨진 맥락을 함께 보존하고,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기록의 검색과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무형문화재 정책 담론이 원형에서 전형으로, 보존에서 창의적 활용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에 대한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원형’에 대한 증거와 정보를 찾고 연구를 하는 활동에서 미래에 활용가능 한 ‘원천소스’를 다양하게 수집·분석하여 ‘전형’의 가치로의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한국인과 세계인이 인정하는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전승주체에게는 해당종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감만 주어지지 않는다. 전승주체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하며, 이 과정에서 무형문화재 전수를 담당하는 매개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한다. 초기에는 전통과 원형 보존을 추구하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창의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고, 무형문화재 택전 전승주체 스스로가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택전 무형문화재 전승주체들에게는 자신들의 ‘실천공동체’를 통하여 갈고 닦아온 기술과 숙련성에 더하여, 종목의 본질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찾아야 하는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전승(傳承)과 ‘현대적 변용’에 대한 방향에서 새로운 고민을 심도 깊게 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지금까지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주체들의 디지털 아카이브즈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택전의 새로운 역사와 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승주체의 생애사와 여러 주제가 내포된 인터뷰한 자료에 주목하면 다양한 맥락, 즉 사회·문화적 구조를 엿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로서의 택전 전승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를 말하고, 채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앞으로 택전을 어떻게 전승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기도 하며,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택전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 전승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무형문화재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즈 구축은 택전의 다양한 가치와 미래유산적 의미를 밝히며, 유·무형의 통합적 연구를 가능케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

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관계부처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지털문화유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제 무형문화재 자료의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 또한 비대면(언택트) 시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된 것이다. 지식을 생성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패턴 변화에 맞게 지식정보의 창출과 보전에 대한 방법론의 고민과 연구 역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전승주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종목에 대한 원천소스를 수집·저장·공유·활용하는 민간 아카이브 구축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강인숙, 김신효, 정성미, 조나영(2017). **승전무에서 북춤과 칼춤으로**. 흐름 출판사.
- 김덕목(2012). 민속과 기록의 만남, 민속기록학을 제창한다. **기록학연구**, 34. 한국기록학회, 165-219.
- 김두섭(2016). **한국전통무예의 풍류적 해석**.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문화재청(2017). **무형문화재 쟁점분야 집중토론회 최종보고서**.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 박순철, 함한희, 이정승, 정성미(2018). **인문학자를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즈**. 민속원 아르케.
- 배양희, 김유승(2017). 민간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 53. 한국기록학회, 119-159.
- 송준(2008).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전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7, 남도민속학회, 217-241.
- 송준(2019). 무형문화유산 ‘전형’ 개념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 **남도민속연구**, 93, 남도민속학회, 235-248.

- 아마르티아 센 지음, 이상환, 김지현 옮김(2009). **정체성과 폭력**. 바이북스.
- 양재식, 김정동, 강석범(2018). 태권보존회의 단체 특성과 역할. **무예연구**, 12(4), 1-16.
- 이병준, 박응희(2015). 수공업 장인의 문화적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통영장인의 학습생애사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10), 27-43.
- 이상현(2010). 무형문화재의 영상민속지 기록화 작업의 특징과 문제점. **비교민속학** 43, 비교민속학회, 379-419.
- 정성미, 이민석(2019). 동진강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원천소스 개발 및 가치창출. **무형유산학**, 4(1), 283-310.
- 정수진(2006). 원형의 기록화 기록의 원형화. **한국민속학**, 44, 463-490.
- 정재성(2003). 태권의 전통성 문제. **한국체육철학회지**, 11(2), 135-170.
- 최해리(2014). 무용구술채록문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한국근현대무용사 서술의 한계 극복. **무용역사기록학**, 35, 31-69.
- 함한희, 정성미, 이정송(2014). **무형문화유산 기록화 지침서**. 국립무형유산원.

<인터넷 신문 자료>

- 강신욱, 2017년 6월 18일, **태권 전국체전 정식종목 ‘청신호’**, 양대 단체 통합 추진, 뉴시스.
- 제갈덕주, 2018년 1월 16일, **전통무예 진흥과 데이터베이스**, 무예신문.

<홈페이지>

-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
- 국립무형유산원 책마루 <http://library.nihc.go.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http://www.unescoicm.org/>
- e뮤지엄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http://www.emuseum.go.kr/main>
- 사)세계무술연맹 <http://womau.org/>
- 이치피디아 <http://www.ichpedia.org>

ABSTRACT

A Study on the Need and Meaning of Digital Records for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aekkyeon

Jeong, Seong-Mi(Jeonbuk National Univ.)

Taekkyeon, a state-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asset and also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mankind, has a very high status. However, Taekkyeon, like o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vents, has many challenges for promoting transmis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f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arting with the securing of basic data by grasping the various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It cannot be overemphasized that ‘recording’ is the core of various activities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e concept of ‘typifier’ emphasized in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difficult task to solve for many officials, including those who have passed away, administrators, and schol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screening criteria for each event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he status of Taekkyeon’s transmission is to discover the value of Taekkyeon, which is continuously being made in modern times, and to explore and analyze the system of transmission that is perceived and practiced as a value that must be passed down. For this reason, the articl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aekkyeon Digital Archive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aekkyeon records, reveal various values and future heritage meanings of Taekkyeon, and enable integrated research.

Key words: Taekkye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rding, Typifier, Digital Archives

논문투고일 : 2020.09.30.
심 사 일 : 2020.10.11.
심사완료일 : 2020.10.30.